

“엘리 제사장의 교훈”

사무엘상 2:12-17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더럽혔고, 수많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삼상 2:12)**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는 뜻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그 분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생과 함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아세례’ 가 전혀 의미가 없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는 때가 되어 침례(세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겉으로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은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삼상 2:13-16)**

그들은 제사에 드려지는 고기의 분배 원칙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한 것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삼상 2:22)**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존재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듯,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회막문의 여인과 동침한 것은 이방 가나안 백성들의 신전 개념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방 신전의 여인들은 모두가 거룩한 여인이라는 명칭을 지닌 창녀와 같았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의 신전화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이런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이 일을 치리하지 못하고 가벼운 책망과 훈계에서 그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삼상 2:23-24)**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두 아들의 악행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렸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가 지녀야 할 마땅한 책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엘리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세가지를 더한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삼상 2:28)**

첫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되어 분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둘째,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한 자격을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담당하는 직분을 엘리 집안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삼상 2:29)

엘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 직분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야 하는데, 자식들에 대한 그릇된 사랑 때문에 그 직분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렇게 편안하게 살만 쥘 수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삼상 2:30)

하나님께서서는 엘리의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런데, 그 영광된 직분을 받은 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게 되면, 그 때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제사장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주의 종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주의 종과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목회자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사람들이 어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만약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조용히 떠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민수기 12 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비방하게 되는데, 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내가 세운 종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하지 않느냐” 고 진노하십니다.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질서와 영적 권위에 대해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직분을 항상 잊지 말고 그 직분에 맞게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오히려 그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나는 충분히 훈계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혹 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한 내 주변에 그런 가정의 모습을 경험했다면 오늘 말씀의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 비추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의 소관이며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 또 민수기 12 장의 모세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한 오늘 설교 내용이 나에게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범죄한 제사장들에 대한 징계는 매서웠습니다.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삼상 2:34)

두 아들이 한 날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삼상 2:31-33)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저주하십니다. 그 가문에 노인이 없게 됩니다. 이 말은 이 가문이 자손 대대로 오래 살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일찍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은, 부모의 그릇된 자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세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개척해서 부흥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업적이라 여기면 안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삼상 2:35)

하나님께서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리더, 그리고 그 영적 리더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더 풍성하게 펼쳐지는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